

##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SDLMI)에 기반한 대면상담이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행동과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김경희\*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한상민 (서울ABA연구소, 소장)  
한송이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박사과정)  
백은희\*\*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

### 〈요 약〉

---

이 연구에서는 복지관의 사례관리대상인 두 명의 성인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대면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SDLMI) 중재를 실시함으로써 자기결정행동 및 학습된 무기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인 20대 초반의 지적장애를 지닌 성인남녀 각 1인을 대상으로 대면상담 과정에서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SDLMI)을 단계별로 실시하였으며, 자기결정검사, 학습된 무기력 검사, 목표달성척도(Goal Attainment Scale) 검사를 사전 사후에 실시하여 중재의 영향을 측정하였고 질적 연구방법으로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을 활용하여 상담 과정에서 나는 대화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연구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인식의 변화는 어떠한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연구참여자 모두 자기결정행동이 향상되었고 학습된 무기력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상담 자료에 대한 질적분석 결과, 자기결정행동 및 학습된 무기력에 관련된 연구참여자의 인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SDLMI)은 지적장애를 지닌 성인 대상의 상담 과정에서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

〈주제어〉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 SDLMI, 대면상담, 지적장애

---

\* 제1저자(tongknna@naver.com)

\*\* 교신저자(ehpaik@kongju.ac.kr)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자기결정행동은 자기 삶의 일차적 원인 주체(causal agent)로써 자신의 삶의 질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의지적인(volitional) 행동으로(Wehmeyer, 2005), Field, Martin, Miller, Ward, Wehmeyer(1998)는 자기결정의 다양한 정의를 요약하여 ‘자기결정적인 사람은 다양한 기술, 지식, 믿음을 종합, 적용함으로써 목표지향적이고 자기조절적이며 자율적인 행동을 수행하게 한다’(p. 2)라고 하였다. 자기결정행동을 정의하는 특징들은 상호 연관성 있는 여러 요소들의 발달과 습득을 통해 나타나는데, 그 구성요소로 선택하기 기술, 의사결정 기술, 문제해결 기술, 목표설정과 목표달성 기술, 자기옹호, 자기관찰과 평가 및 자기강화, 자기효능성에 대한 긍정적 귀인, 자기교수, 자기인식 등이 있으며, 이러한 구성요소의 발달과 습득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진다(Wehmeyer, Agran, Hughes, Martin, Mithaug, Palmer, 2007/2010).

그러나 지적장애인은 성공의 경험이 적고 반복된 실패로 인해 자기 행동의 책임을 외부에 돌리는 외적 통제소재를 보이거나, 문제해결을 위해 스스로가 아닌 타인의 지도를 바라는 외부 지향성을 나타내는 등,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된다(김갑상, 2018). 특히 잦은 실패로 인해 성공에 대한 기대보다는 실패의 기대감이 높다. 성취의 원인에 대해 노력을 귀인으로 삼고, 자신에 대한 통제능력에 자기효능감을 갖고 있어야 동기가 유발되어 적극적인 전략을 사용할 수 있으나 지적장애인은 되풀이되는 실패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의 상태에 빠져 있다(백은희, 2005).

이러한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숙향 등(2018)에 따르면 장애학생의 자기결정과 관련된 연구는 10년 전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양적으로 증가했으며, 모든 연구주제에 걸쳐 비교적 꾸준한 연구 진행이 나타났다. 그 중 자기결정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성 역시 여러 실험 설계를 통해 입증되고 있는데, 지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점검(유환조, 이영철, 2012), 자기관리(안혜신, 이숙향, 2015), 일과 계획하기(김소연, 이숙향, 2017) 등 다양한 독립변인을 중재에 사용하여 자기결정행동, 문제해결능력, 학업성취도, 자기효능감 등을 향상시켰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자기결정 관련 중재 연구를 연령급별로 분석해보면 중고등학교령기가 가장 많은데(김수진, 박은미, 2017), 이는 자기결정력이 가장 발달하는 연령이 고등학교 시기인 것을 말한다(이옥인, 2011).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등학교 시절의 장애학생 자기결정 수준은 졸업 후 고용률과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통합 및 자립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Wehmeyer, Schwarz, 1997). 자기결정행동은 독립된 성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과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경험의 기회를 맞보는 것이 중요하나 대부분의

장애학생들은 고등학교 및 전공과를 졸업하고도 취업으로 이어지거나 독립된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어려운 현실이다(최성욱, 이제화, 이수진, 김민정, 2007). 그러므로 학령기에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결정행동을 가르치는 일은 장애인이 성공적인 성인기 전환을 맞이하는데 효과적인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SDLMI)을 활용하여 전공과 학생들의 작업 수행력을 향상시키는 등(김창호, 백은희, 2011; 김창호, 2012; 정윤지, 백은희, 2012) 성인기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재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중재 연구는 극히 적은 실정이다(김수진, 박은미, 2017). 장애학생이 자립을 통해 사회에 안전하게 통합되어 질 높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기결정의 함양은 필수적이나(Agran, Blanchard, Wehmeyer, 2000), 학령기 이후의 성인에 대한 자기결정 적용의 연구가 현재로는 많이 부족한 편이다. 최근 평생교육에 대한 주목과 함께, 지적장애인들의 학령기 이후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들은 자기결정능력이 높은 지적장애인의 졸업 후 취업과 삶의 질이 더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이성봉, 2013).

이에 이 연구는 학교를 졸업하였으나 취업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지내는 성인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면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 스스로 과제를 결정하고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결정행동을 익히고 문제해결 기회를 경험하여 학습된 무기력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재를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중재 전략으로 장애인을 위한 자기결정 교수전략 중 하나인 Wehmeyer, Palmer, Agran, Michaug, Martin(2000)의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Self-Determined Learning Model of Instruction, SDLMI)을 활용하였다. 자기결정 교수학습 모형은 자기주도적으로 다양한 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사가 1단계에서 3단계까지의 개별 면담과정을 거치면서 피면담자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중재전략을 적용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모형이다(Wehmeyer 등, 2007/2010). 즉, 교사 주도적인 다른 모형과 달리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SDLMI)에서 교사는 개별적으로 학생을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에 다양한 의사결정 기술을 습득시키고 연습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상담기술 또한 중요하다. 상담(counseling)이란 내담자의 자기이해,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이 이루어지도록 상담자가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과정이다(Pietrofesa, Leonard, Hoose, 1978).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자신의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상담이라고 하지 않는다. 상담은 내담자와 상담자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내담자의 심리 또는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국내에서 적용된 연구를 살펴보면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SDLMI)을 장애 학생에게 적용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학령기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왔지만(박주경, 강영심, 2011; 이옥인, 2008; 최화진, 김수연, 2008), 장애의 유형이나 심각한 정도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hogren, 2018). 전공과 지적장애 학생의 자기결정행동과 작업(조립)생산성과 목표성

취척도(Goal Attainment Scale)에서도 결과에 효과적이었고(김창호, 백은희, 2011; 정윤지, 백은희, 2012), 최근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도 중재를 실시하여 수업참여행동을 증가시키고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를 나타내었다(염지혜, 이숙향, 2015). 이와 같이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SDLMI)은 초등학교 연령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적용되었지만, 선행 연구에서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SDLMI)을 상담과 연합하여 적용한 사례는 없다. 장애인 평생교육에 있어 성인 발달장애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평생교육 기관은 장애인복지관이며(조창빈, 김두영, 2016), 장애인의 교육욕구 실현에 있어서 이러한 기관에서 가장 효과적인 지원 방법이 개별상담이다(이병인, 2012). 그러나 언어를 매개로 대화가 주가 되는 상담에서 상담사들은 한편으로는 장애에 대한 이해에 있어 한계가 있다(김성희, 신현기, 2017).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특수교육의 중재방법 중 하나인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SDLMI)에 대면상담 방법을 적용하여 내담자와 상담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제한된 인지능력을 가진 지적 장애인 연구참여자의 자기결정 행동과 학습 무기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의 성취를 위하여 양적,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SDLMI)에 기반한 대면상담 중재가 성인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었으며,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SDLMI)에 기반한 대면상담이 성인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SDLMI)에 기반한 대면상담이 성인 지적장애인의 학습된 무기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SDLMI)에 기반한 대면상담과정에서 연구참여자는 자기결정행동 및 학습된 무기력과 관련한 어떠한 인식을 나타내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연구자 중 1인이 근무하고 있는 충청남도 E시의 K장애인복지관을 다니고

있는 지적장애 성인 2명으로, 남성 1명, 여성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참여자는 연구자의 구체적인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소통능력이 있는 정도 지적장애의 성인으로, 해당 복지관의 사회복지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고 상담을 지원받고 있었다. 두 참여자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성인초기로 진입하는 시기로, 부모, 배우자, 동료들과의 좋은 관계형성을 통해 성인초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친밀감 형성’을 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두 참여자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단기간 아르바이트 수행에도 어려움을 보이며 사회적 역시 부족하여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발전시키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사회·심리적으로 침체되고 고립감을 느끼며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복지관에서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철수는 D 인문계 고등학교 특수학급을 졸업한 21세 성인 남성으로, 3년 전(2015년) 종교단체의 요청으로 K장애인복지관과 연계되어 상담지원을 받게 되었다. 철수는 일반학교 재학 시 특수교육 대상으로 지정되어 특수교육 지원을 받았지만, 장애에 관한 진단 및 평가는 부모님의 강력한 거부로 인해 받아본 경험이 없으며 장애등록 역시 하지 못하고 있다. 이후 병역 판정 시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 판정을 받아 병역 면제되었으나, 장애등급은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다. 철수는 수줍은 성격으로, 주어진 질문에는 답을 할 수 있지만 목소리가 작고, 적극적으로 먼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며 상대방과 눈맞춤을 잘 하지 못하는 편이다. 연구 참여자 철수는 취업을 하고 싶으나, 자신의 현재 능력 상태와 흥미, 적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므로 일을 구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청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 3개월 과정에 참여하는 등 취업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간단한 아르바이트(편의점, 물류창고, 고기집 서빙 등)는 하루 혹은 며칠 만에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고 제과제빵 자격증 취득에도 도전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각종 검사에 거부감을 나타내며, 특히 결과물이 드러나는 활동은 선호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철수는 묻는 말에 대부분 “몰라요” 혹은 “기억 안나요”라는 식으로 대답하는 특성을 보였다.

연구참여자 영이는 D 인문계 고등학교 특수학급을 졸업한 21세 성인 여성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지적장애 3급을 판정받았다. 영이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직장을 구해 본 적이 없으며, 지역사회 기관과의 관계도 점차 피하면서,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이성과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고 있다. 영이는 지금까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제안한 활동을 거부하고 무직상태로 집에서 지내거나 계속해서 SNS 등으로 이성교제를 반복하던 중, 사회복지사의 권유로 상담을 받게 되었다. 영이는 쾌활한 성격으로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의사 전달력은 분명하나 타인의 대화를 수용하거나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보였는데 특히 ‘남자친구’와 관련된 단어 및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특성을 보였다. 만일 상담 주제나 이야기로 되돌아가려거나 혹은 이야기의 흐름이 본인의 관심과 동떨어진 주제로 바뀌게 되면 영이는 계속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로 되돌아가려거나 상담을 종결짓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연구참여자에

<표 1> 연구참여자 정보

연구참여자 (가명)	연령	성별	학력	상담 의뢰 계기	장애등록 여부
철수	21세	남	D 인문계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	본인 의지 및 부모 권유	장애 미등록. 병역 판정시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 판정을 받아 병역 면제
영이	21세	여	D 인문계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	사회복지사 권유	지적장애 3급

대한 특성별 정보는 <표 1>과 같다.

## 2. 연구 설계

이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 대상으로 복지관 사례관리를 위한 대면상담(in-person counseling)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SDLMI)에 기반한 상담을 실시하고 자기결정행동과 학습된 무기력에 대해 사전과 사후로 검사를 실시하여 그 영향을 비교하였다. 연구에서 상담과 중재를 담당한 연구자는 교육상담심리전공의 박사과정생으로, 충청남도 E시의 K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심리상담 전문상담사로 근무 중이다. 또한 특수교육전공 박사과정생 2인이 연구자에 포함되어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SDLMI)의 적용을 포함한 연구 설계, 검사도구 활용, 자료수집, 분석 등 모든 연구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협업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연구참여자들과의 대면상담 내용을 분석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대면상담은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용어, 그들의 경험 및 인지과정에서 어떻게 의미를 만들어 가는지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Yin, 2013). 이 연구에서 활용한 질적 연구방법은 Hill, Thompson, Williams(1997)의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으로, 연구자들이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과정 중에 자료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모든 구성원이 자료에 대한 최선의 설명이라고 동의할 때까지 토의하는 연구방법이다. CQR에서는 단계에 따라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에 따른 질문지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SDLMI)에 사용되는 기법이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된 상담지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CQR 질문지가 구성되었다. 연구자들은 반(半)구조화된 상담을 여러 차례 실시하여 쌍방향 상호작용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맥락적 상황을 합의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동시에 연구참여자의 경향과 상황을 깊이 숙고하였다.

### 3. 측정 도구

#### 1) 자기결정검사

이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자기결정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류숙열(2002)이 사용한 「자기결정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검사는 유치원 연령부터 21세에 이르기까지 학령기 학생에게 적용가능한 American Institute for Research(AIR) Self-determination Scale(Wolman 등, 1994)을 번역하여 수정 보완한 것으로, 예비검사와 요인분석 및 요인별 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분석 절차를 거쳐 우리나라에서의 활용성 및 타당도와 신뢰도를 입증하였다. 이 검사는 학생, 부모, 교사용 총 3가지가 있으며, 5가지의 하위 요인(지식, 능력, 인식, 학교지원, 가정지원)별 6개씩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사용은 5개 요인에 해당하는 30문항, 학생용은 4개 요인의 24문항, 부모용은 3개 요인의 18문항으로 되어 있고 1~5점 척도의 설문양식을 자기보고식으로 기입하게 되어 있다. 검사 총점은 원점수를 백분위로 환산하여 그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결정의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 중 학생용을 사용하였는데, 4개의 하위 요인(지식, 인식, 학교지원, 가정지원) 중 학교지원 요인은 연구참여자들이 이미 학교를 졸업한 성인임에 따라 해당이 없으므로 검사를 생략하여, 나머지 3개 영역의 18문항만을 실시하였고 이를 백분위로 환산하여 점수를 계산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자기결정검사의 질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연구자가 일부 항목에서는 문항에 부가적으로 삽입된 질문 예시를 사용하여 직접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측정지에 기록하였다.

#### 2) 목표달성척도(Goal Attainment Scale)

이 연구에서는 자기결정행동의 하위 요소인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하는 도구로 목표달성척도(Goal Attainment Scale)를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목표달성척도란 중재를 시작하기 이전 단계에서 연구참여자와 연구자가 중재전 기간에 비해 중재 종료 후 작업 수행의 정도가 얼마나 향상될지 기록한 것으로, 목표의 성취수준을 단계화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목표달성척도는 일반적으로 5점 척도를 사용하는데, 점수 체계는 중재 후 연구대상자에게 기대되는 수준을 0점으로 설정하고, 이 수준보다 높은 기대수준을 2단계 설정하여 +1점과 +2점을, 이 수준보다 낮은 기대수준을 2단계 설정하여 -1점과 -2점을 설정해놓는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각각 작업수행에 대한 기대수준을 수립하여 중재전 단계에서 목표 달성표를 작성한 뒤, 중재 후 그 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 3) 학습된 무기력 검사

이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학습된 무기력 검사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김창호(2011)가 사

용한 「학습된 무기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검사는 총 7개의 하위영역(자신감 결여, 우울-부정적 인지, 수동성, 통제력 결여, 지속성 결여, 과시욕 결여, 책임성 결여)에 대한 총 3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매우 그렇다(4점), 대체로 그렇다(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구성된 1~4점 척도의 설문양식을 역시 자기 보고식으로 기입하게 되어 있다. 각 문항별 총점을 환산하며 점수분포는 34~136점으로 구성된다. 이 검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5$ 로 나타났다. 이 검사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질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연구자가 일부 항목에서 질문을 쉽게 바꾸어 묻고 그 대답을 측정지에 기록하였다.

#### 4. 연구 장소 및 기간

이 연구는 연구참여자가 다니는 K장애인복지관의 3층에 위치한 상담실에서 실시되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옆으로는 1인용 의자가 두 개 놓여있고, 마주 보는 벽 위쪽으로 설치된 세 개의 나무 선반에는 인형과 시계가 있다. 앞 쪽에는 우드 블라인드가 내려진 창이 있으며, 상담실 한가운데 4인용 테이블과 의자에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마주 앉을 수 있다. 상담 중 위기 상황 발생 시 연구자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연구자는 문에 가까운 자리에 문을 등지고 착석하였고, 연구참여자는 과도한 빛으로 인해 시선이 분산되지 않도록 창을 등지고 앉음으로써 상담하는 테이블로 집중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하였다.

연구 대상의 선정은 2018년 9월 셋째 주부터 10월 셋째 주까지 이루어졌으며, 상담은 11월 둘째 주부터 12월 셋째 주까지 12회기에 걸쳐 일대일 대면상담으로 이루어졌다. 상담 중 중재가 이뤄지는 특성상, 측정도구인 학습된 무기력 검사와 자기결정검사는 2회기 짝인 11월 12일에 실시되었고, 사후 검사는 철수의 경우 12월 20일, 영이의 경우 12월 17일에 실시되었다. 목표달성척도의 경우 목표 설정은 철수가 5회기인 11월 26일에, 영희가 3회기인 11월 15일에 설정되었으며, 달성 여부의 검사는 철수가 7회기인 12월 17일에, 영이는 11회기인 12월 17일에 실시하였다. 질적 연구를 위한 자료분석은 중재 종료 후 12월 셋째 주부터 다음 해 1월 셋째 주까지 실시하였다. 회기별 상담 및 중재 진행과정은 <표 2>와 같다.

#### 5. 연구 절차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SDLMI) 1단계는 연구참여자들이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로, 연구참여자는 1단계 상담지의 질문에 차례로 답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활동을 목표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1단계는 모두 4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

〈표 2〉 연구참여자의 회기별 상담 진행 과정

참여자	회기	일시	중재 및 상담	SDLMI 단계	목표 설정
철수	1회	11월 8일	▪ 연구동의서 작성 및 라포 형성		
	2회	11월 12일	▪ 검사 실시(학습된 무기력, 자기결정)	▪ 1단계 완성	
	3회	11월 15일	▪ 그림물감 색칠	▪ 2단계 시작	▪ 그림 채색 완성하기
	4회	11월 22일	▪ 그림물감 채색 활동 2회기 만에 완성	▪ 2단계 지속	
	5회	11월 26일	▪ 색연필로 채색하기 2장 완성 ▪ 목표달성척도(GAS) 목표 설정	▪ 1단계 수정, 2단계 시작	▪ 상담실 10분전 도착
	6회	12월 10일	▪ 그림물감 및 색연필 채색 소감 나누기 - 색연필로 색칠하기 1장 완성	▪ 2단계 지속	
	7회	12월 17일	▪ 목표달성척도(GAS) 검사 실시 - 색연필로 색칠하기 1장 완성	▪ 2단계 지속	
	8회	12월 20일	▪ 목표달성척도(GAS) 검사 실시 ▪ 사후 검사(학습된 무기력, 자기결정) 실시 - 색연필로 색칠하기 1장 완성	▪ 3단계 종결	
영이	1회	11월 5일	▪ 연구동의서 작성 및 라포 형성		
	2회	11월 12일	▪ 검사 실시(학습된 무기력, 자기결정)	▪ 1단계 완성	
	3회	11월 15일	▪ 그림물감 색칠 시작 ▪ 목표달성척도(GAS) 목표 설정	▪ 2단계 시작	
	4회	11월 19일	▪ 중재전 탐색 및 목표행동 탐색	▪ 2단계 지속	
	5회	11월 22일	▪ 그림물감 채색 포기	▪ 2단계 지속	
	6회	11월 29일	▪ 동화책 읽기로 목표 재설정	▪ 1단계 재설정	▪ 동화책 1권 읽기 ▪ 상담실 10분전 도착
	7회	12월 3일	▪ 상담 시간 7분전 도착 - 책읽기: 소가 된 게으름뱅이	▪ 2단계 재시작	▪ 이성교제에 관한 집착적 관심 돌리기
	8회	12월 6일	▪ 상담 시간 정시 도착 - 스마트폰의 알람 맞추기로 중재 - 책읽기: 구슬 먹은 거위	▪ 2단계 지속	
	9회	12월 10일	- 책읽기: 방귀 잘 쐬는 며느리	▪ 2단계 지속	
	10회	12월 13일	- 책읽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 2단계 지속 ▪ 3단계 시작	
	11회	12월 17일	▪ 사후검사(학습된 무기력, 자기결정) 실시 ▪ 목표달성척도(GAS) 검사 실시 - 책읽기: 흑부리 영감	▪ 3단계 지속	
	12회	12월 20일	▪ 상담 시간 10분 전 도착 - 책읽기: 콩쥐 팥쥐	▪ 3단계 종결	

가?”에 답하도록 하였다.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SDLMI) 1단계가 완료되면 2단계에서는 목표된 계획을 실행하는 단계로, 1단계와 마찬가지로 모두 4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참여자는 상담지의 질문에 차례로 답하면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행수준을 파악한 뒤 방해요소는 무엇이고, 언제 어떻게 그 방해요소를 제거할 것인지를 계획한다. 이 연구에서도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SDLMI) 1단계를 실시하여 목표행동을 선정한 뒤, 2단계에서 선정된 활동을 개시하였다. 활동을 스스로 완성하는 시점에 접어들면서 자기결정 교수학습 모형 3단계를 실시하고 목표했던 활동에 대해 평가하였다.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SDLMI) 3단계는 실행한 계획에 대한 진보를 스스로 평가하고 방해요소의 제거여부를 확인하며, 본인의 변화된 모습과 목표달성 여부를 확인하게 한다. 이 연구참여자 중 일부는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SDLMI) 2~3단계를 실시하는 도중에 이전에 목표했던 활동내용이 수정되기도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SDLMI) 1단계로 돌아가 설정된 목표를 수정한 뒤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SDLMI) 2~3단계 활동에 다시 하였다.

### 1)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SDLMI) 1단계

#### (1) 연구참여자 철수의 1단계

연구자는 연구참여자 철수와 대면상담을 진행하고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SDLMI) 1단계 목표 설정하기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 철수의 무기력한 모습과 구직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으므로, 학습된 무기력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작은 과제에서부터 성공의 경험을 축적하도록 유도하고 싶었다. 이에 연구자는 연구참여자 철수에게 몇 가지의 간단한 수행 작업을 제시하고 이 중 본인이 원하는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연구자가 연구참여자 철수에게 제시한 몇 가지 활동 목표는 종이접기 공예, 그림 색칠하기, 글쓰기, 책 또는 만화책 읽기, 기관 청소하기였으며, 목표 예시가 들어있는 기록지를 제시하고 선호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만일 제시된 활동이 기관 외에서 진행된다면, 이를 관찰 측정할 인력이 없다는 점과, 연구참여자가 아직은 스스로의 활동을 자기 점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선택 대상 활동은 모두 연구 장소인 기관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제시하였다.

상담을 통하여 연구참여자 철수는 미술 그림 색칠하는 활동을 선택하였다. 목표행동을 선택한 후 연구자는 연구참여자 철수가 할 수 있는 수준의 그림 색칠 난이도를 시중 제품에서 찾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 과제는 캔버스에 기입되어 있는 숫자에 맞는 물감을 칠하는 활동으로, 일반적인 비장애 성인이 20~30분 이내에 완성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회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 철수의 상담 결석률이 발생함에 따라 성실한 출석을 유도하기 위해 5회기에 이에 대한 내용을 목표행동으로 추가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 철수가 시간 개념에 서투르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상담에 결석하지 않고 꾸준히 출석하려면 스

스로 약속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스마트폰 캘린더 메모장’과 ‘핸드폰 알람설정’을 활용하는 방법을 지도하였다. 따라서 스스로 결석 없이 상담에 임하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목표달성척도(GAS)를 설정하였다.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철수는 상호 협의하여 전체 회기의 70% 이상을 참석하면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 (2) 연구참여자 영이의 1단계

연구참여자 철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연구참여자 영이를 대상으로 중재전 단계에서 라포를 형성한 후 대면상담을 진행하고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SDLMI) 1단계 목표설정을 실시하였다. 제시한 활동 역시 연구참여자 철수와 동일한 활동이었는데, 연구참여자 영이 역시 미술 그림 색칠하는 것을 선호하는 활동으로 선택하였다.

연구참여자 영이 역시 상담에 결석하지 않고 꾸준히 출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상담 3회기에 목표달성척도(GAS)를 설정하였다. 연구참여자 영이 역시 전체 회기의 70% 이상을 참석하면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 2)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SDLMI) 2~3단계

### (1) 연구참여자 철수의 2~3단계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SDLMI) 2단계에서 연구참여자 철수는 이전에 관찰되지 않았던 집중력을 선보이며 3회기 첫 물감색칠에서 33분 동안 그림을 1/3정도 채색하였고, 4회기 두 번째 시간에 30분에 거쳐 그림을 완성하는 등 꾸준히 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총 12차로 계획되어 있던 상담에서 결석이 계속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총 4회 결석하였다. 11월 19일에는 복통으로 결석하였고, 12월 3일에는 할머니의 방문으로 결석하였으나 오전에 연구자에게 미리 연락을 주었다. 12월 6일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연락 없이 결석하였고, 12월 13일에는 아르바이트 시간이 변경되어 결석한다는 내용을 연구자에게 문자로 사전에 미리 연락을 주었다.

2단계 진행 후,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철수는 과제의 수행 속도가 너무 낮아서 과제 완성에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에 연구자는 연구참여자 철수에게 1단계로 돌아가 목표를 조정하기로 하였고, 채색 방법을 물감이 아닌 색연필로 완성하도록 지원하였다. 이후 연구참여자 철수는 5회기에서 색연필 색칠 총 2장을 완성하였는데,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 모두 16분 만에 과제 수행을 완료하였다.

3단계에서는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목표를 얼마나 성취하였는지 스스로 평가하고, 이러한 자기 평가를 통해 자신이 목표한 바를 충분히 이루었음을 확인한다. 철수는 채색에 흥미를 갖고 본인의 수행과제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작품에 대해 스스로 평가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이에 8회기에서 3단계 목표달성 평가를 종료하고 사후 검사 단계를 진행하였다.

(2) 연구참여자 영이의 2~3단계

연구참여자 영이는 1단계에서 설정한 색칠하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예전처럼 남자친구 얘기만을 늘어놓거나, 스스로 상담을 거부하고 회기를 종료하는 등 2단계를 실시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연구참여자 영이는 3회기부터 4회기까지 색칠하기를 진행하다가 5회기에서 결국 색칠하기 목표활동을 포기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SDLMI) 2단계와 1단계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연구참여자 영이의 목표를 도중에 수정하였다.

상담회기 6회기에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SDLMI) 1단계로 돌아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영이가 협의하여 수정한 목표 활동은 '책읽기'였다. 이에 연구자가 소장하고 있는 전래동화집에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읽을 수 있는 내용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이 읽을 수 있는 난이도를 지닌 동화책을 30권을 선정하여, 그 중 한 권씩 상담회기별로 읽게 하는 활동을 실시하였다. 목표는 한 회기 내에 동화책 한 권을 다 읽는 것으로 하고, 책을 다 읽은 후 연구자와 그 내용에 대해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예전처럼 연구참여자 영이가 복지관 출석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별도의 강화계획을 삽입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 영이에게 4번 연속 출석할 경우 연구참여자 영이가 좋아하는 활동 중 하나인 카페에서 선생님과 함께 커피를 마시기로 계약하였고, 지정된 연속출석을 달성하면 계약을 이행하였다.

이후 영이는 10회기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으로 상담에 나오려는 적극성을 보이면서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먼저 언급하고 선택하는 등 자신이 설정한 행동계획을 꾸준히 실행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10회기를 기점으로 3단계 목표성취 평가를 실시하였고, 12회기에 3단계를 종결하면서 사후 검사를 아울러 실시하였다.

## 6. 자료처리

### 1) 양적 자료 분석

두 연구참여자의 자기결정행동과 학습된 무기력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SDLMI) 1단계 시점에서 두 검사의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목표달성척도(GAS)는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SDLMI) 1단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협의하여 목표를 설정하였다.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SDLMI) 3단계가 종결된 후 사후검사를 위해 연구참여자의 학습된 무기력 검사와 자기결정검사를 재실시하였다. 목표달성척도(GAS) 역시 동일 회기에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함께 평가하였다. 자기결정검사는 원점수와 백분위(%)로, 학습된 무기력은 원점수로 나타내었고, 목표달성척도는 T-점수로 환산하였으며, 세 가지 검사 결과를 표로 제시하였다.

## 2) 질적 자료 수집 및 분석

두 연구 참여자 모두 연구자의 기존 사례관리 대상이므로 이미 충분한 친밀감이 형성된 상태에서, 매 회기 중재 및 상담은 자연스럽게 상담실에서 이루어졌다. 연구를 개시하기에 앞서, 연구진행에 관해 K장애인복지관의 승인 및 연구참여자들의 허락과 서면동의를 구하였고, 지적장애 3급인 영이는 부모의 허락과 서면동의도 구하였다. 이 연구에 대한 설명과 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주었으며, 연구의 정확성을 위해 상담 내용이 별도로 녹음된다는 사실을 인지시켰다. 매 회기마다 중재 및 상담에 소요된 시간은 최소 40분에서 최대 60분이었다. 녹음자료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상담실에서 마주 앉아 인식하는 순간부터 다음 회기를 약속하고 일어서는 순간까지 수집하였으며, 모든 회기의 녹음 자료를 회기가 끝나면 바로 전사하였다. 자료 분석은 자료 수집과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SDLMI)에 따른 각 질문 항목 별로 모두 텍스트화 하였다. 또한 상담 자료를 보완하기 위하여 매 회기 종료 후 연구자가 작성하였던 상담 일지를 수집 대상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문제 3의 질적 자료 분석을 위하여 Hill, Thompson, Williams(1997)의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을 사용하였다. CQR은 귀납적이며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을 범주화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상담에서는 반(半)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고, 숫자가 아닌 언어에 기반하여 단어나 문맥 속 언어 표현, 이야기 맥락을 중요시한다. 연구자들은 판단을 내리기 전에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 전 상담과정을 분석하였다. 사례 내 분석을 통해 주제영역(domain)을 개발하고, 전사한 자료를 계속 읽어보며 의미 있는 응답이나 연구참여자의 특징적인 진술에서 공통되는 것들은 함께 묶어 사례마다 핵심개념(core ideas)을 만들었다. 연구자 중 연구참여자의 장애 특성을 잘 알고 있는 특수교육전공 박사과정생 2인이 각 사례영역에서 핵심 단어가 속해있는 문장들을 다시 요약하고 간추려 개념으로 정리하였으며 생성된 하위범주들을 비교하고 대조해보는 작업을 통하여 범주 간의 관계들을 포함할 수 있는 상위범주를 찾으며 교차분석을 하였고, 특수교육 전문가인 교수의 조언과 평가(peer debriefing)에 따라 수정하였다. 반복된 합의과정을 통해 자료해석에 연구자가 범할 수 있는 오류나 놓칠 수 있는 문제들을 바로잡고, 편향된 관점이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 III. 연구결과

이 연구의 결과는 연구문제에 따라 자기결정행동 및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양적 검증 결과와, 이와 관련한 연구참여자의 인식 변화를 대면상담 자료에 대한 질적분석을 통하여 기술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참여자 모두 자기결정행동과 학습된 무기력 정도가 향상되었고 질적 분석에서도 연구참여자의 인식에 구체적인 변화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 1. 자기결정행동

이 연구의 자기결정검사의 사전 검사에서 연구참여자 철수는 37점(41.1%)으로 측정되었다.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SDLMI) 중재가 종료된 후, 자기결정검사 결과는 57점(63.3%)으로 측정되어, 사전 검사에서보다 20점(22.2%p) 증가하였다. 연구참여자 영이는 사전 검사에서 24점(26.6%)으로 측정되었고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SDLMI) 중재가 종료된 후 자기결정검사 결과는 24점(26.6%)으로 나타나 사전 검사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상담 출석율과 관련하여 연구참여자 연구자가 설정한 기대목표에 어느 정도의 성취수준을 달성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재 후 목표달성척도를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연구참여자 철수의 최종 확인은 중재 7회기 시점에서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 본인은 '기대수준보다 더 높게 달성'하였다고 답하였으나, 실제 전체 출석률은 75%였으므로 연구자에 의한 답변에서는 '기대된 수준으로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구참여자 연구자 모두 기대목표를 달성한 결과를 보였다. 목표달성척도의 환산점수표를 활용하여 목표달성 수준에 해당하는 T-점수를 산출하였다. 확인 결과, 연구참여자 연구자 2명을 대상으로 한 T-점수는 56.21로 나타났다. T-점수의 경우 50 이상일 때 달성, 60 이상일 때 초과달성, 50 미만일 경우 미달로 해석하며, 참여자 철수의 경우 상담 출석률에 있어 기대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영이는 중재 11회기 시점에서 목표달성척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 본인은 '기대수준보다 더 높게 달성'하였다고 답하였으나, 연구자의 평가는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것으로 응답되었다. 실제로 전체 출석률은 91.7%였고, 따라서 연구참여자 연구자 모두 기대목표를 달성하였다. 목표달성 수준을 목표달성척도의 환산점수표를 활용하여 T-점수를 산출한 결과 연구참여자 연구자 2명의 T-점수는 68.61로 나타나, 참여자 영이의 경우 상담 출석률에 있어 기대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자기결정검사 및 목표달성척도(GAS) 검사 결과

연구참여자	자기결정검사*		목표달성척도(T-점수)**
	중재 전	중재 후	
철수	37점(41.1%)	57점(63.3%)	56.21
영이	24점(26.6%)	24점(26.6%)	68.61

\* 자기결정검사는 원점수를 백분위로 변환하여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결정력이 우수함.

\*\* 목표달성척도는 T-점수 50 이상일 때 달성, 60 이상일 때 초과달성, 50 미만일 때 미달로 해석함.

## 2. 학습된 무기력

연구참여자 철수는 학습된 무기력 검사의 사전 검사에서 89점을 받았으나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SDLMI) 중재가 종료된 후 사후 검사 결과에서는 64점을 받아 사전 검사에서보다 25점 감소된 점수를 받았다. 영이의 학습된 무기력 검사의 사전 검사는 103점이었으나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SDLMI) 중재가 종료된 후, 사후 검사 결과에서는 74점을 획득, 사전 검사보다 29점 감소된 점수로 측정되어, 학습된 무기력의 정도가 상당히 완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철수와 영이의 학습된 무기력 검사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학습된 무기력 검사 결과

연구참여자	학습된 무기력 검사*	
	중재 전	중재 후
철수	89점	64점
영이	103점	74점

\* 학습된 무기력 검사 점수범위는 34점에서 136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으면 학습된 무기력이 더 높음

## 3. 자기결정행동 및 학습된 무기력 인식

이 연구에서는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SDLMI)에 기반한 대면상담 중재를 통해 자기결정행동 및 학습된 무기력에 관하여 연구참여자의 인식의 변화는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대면상담 자료의 질적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선택하기 기술, 의사결정 기술, 문제해결 기술, 자기효능감 및 긍정적 귀인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인식의 변화를 보였다. 대면상담 자료의 질적분석에 따른 자기결정행동 및 학습된 무기력에 관련된 구체적인 인식 변화의 내용은 <표 5>와 같다.

### 1) 자기결정행동의 변화

#### (1) 선택하기 기술

연구참여자 영이는 평소 자신의 선택보다는 보호자나 주변의 성인이 정해진 바를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았고, 그 선택이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마찰이 생기면서 집을 가출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초기에는 타인에 의해 억지로 참여하는 듯한 비자발적 참여의 수준이었다. 중재 초반에 연구자가 영이에게 상담에 나오라고 독려 전화를 하거나 아이 달래듯이 비위를 맞춰주어야 어머니와 함께 상담실에 겨우 나오곤 하였다. 최초 과제

〈표 5〉 대면상담의 질적 분석

내 용	하위 주제	변화된 영역	연구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를 독서로 변경하여 선택한 뒤 흥미를 느낌</li> <li>· 여러 권의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의지를 보임</li> <li>· 자발적으로 상담에 나오려고 함</li> <li>·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먼저 언급하고 고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스로의 선택에</li> <li>동기부여 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택하기</li> <li>기술</li> </ul>	자기결정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색할 부분과 하지 않을 부분 결정하여 채색함</li> <li>· 사용할 색깔을 선택하여 채색 후 스스로 평가함</li> <li>· 일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행동으로 옮김</li> <li>· 자신이 선호하던 일을 기억해 냄</li> <li>· 자신의 능력과 흥미에 맞는 일자리를 신청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선의</li> <li>결과를 위해</li> <li>적극적으로</li> <li>행동을 취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사결정</li> <li>기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 약속을 장애인복지관에 의존하지 않음</li> <li>· 약속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개념이 생김</li> <li>· 약속시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활용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제를 인식하고</li> <li>해결방안을 찾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제해결</li> <li>기술</li> </ul>	학습된 무기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성을 통한 성공의 느낌을 경험함</li> <li>· 다른 방식으로 도전할 용기를 얻음</li> <li>· 잠재되어 있던 미술적 재능을 발견함</li> <li>· 취업에 대해 희망하기 시작함</li> <li>· 자신이 선호하는 일에 대해 인지하게 됨</li> <li>· 대화의 주제가 변화되기 시작함</li> <li>· 상대방과 대화를 유지하고 상호작용함</li> <li>· 향상된 주의집중력을 보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아를 인식하고</li> <li>자신의 강점을</li> <li>파악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기효능감</li> <li>및</li> <li>긍정적 귀인</li> </ul>	

인 그림그리기 과제는 곧바로 싫증을 느끼더니 몇 번의 상담 후 참여중단 의사를 표시했다. 특히 남자친구와의 이성교제로 인해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상담을 거부하는 등 중재가 중단 될 위기도 있었다. 연구자가 네 번 연속 상담 출석시 함께 ‘카페가서 차 마시기’를 강화로 제공하는 행동계약을 맺으면서 중재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과제가 영이의 요청으로 6회기에서부터 책 읽기로 변경되어 진행되었다. 본인의 선택대로 목표를 재설정 한 이후, 영이는 책 한권을 끝까지 읽는 과제 수행이 재미있다고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한 가지 과제에 대한 집중력이 길지 않아 끝까지 과제를 완수한 경험이 없던 영이는 성취감을 느끼고 끈기와 자신감이 높아져 한 권이 아닌 여러 권의 책도 읽을 수 있다는 의지를 보였다. 영이는 9회기부터는 혼자 시간에 맞춰 스스로 상담실을 오기 시작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먼저 읽고 싶은 책을 골라서 연구자에게 요구하는 등 이전보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상담에 임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먼저 언급하기도 하고, 책읽기 과제에 점차 성취감을 느끼자 책표지 뒷면에 실려 있는 다른 책 리스트에서 원하는 책을 선택하는 등, 자신의 의사결정에 만족과 즐

거움을 느끼고 있었다.

영 이: 책 한권 다 읽으니까 기분도 좋고, 내용이 좋아,

연구자: 집에서 이렇게 한 권 다 읽는...

영 이: 적이 없지요.(없어요?) 네, 쌤, 또 책 갖고 올 거예요?(으응~)

나는 이거(표지 전집 목차를 보며) 이거 갖고 와요, 쌤,

[상담 8회기/ 12월6일 참여자(영이)의 SDLMI 과정]

연구자: 예전에도 책을 읽었을 것 같은데...

영 이: 몰라요, 치료실에서 이상한 책, 그때 재미가 없었어.

연구자: 아~ 그랬구나, 여기서 왜 재밌죠?

영 이: 선생님이 책을 잘 갖고 오니까, 재밌는 책... 영이가 골랐어요! 아 쌤 다음 주 월요일엔 이거 갖고 오고, 목요일엔 이거 갖고 와요, 알았죠, 쌤, 책 재밌었어요, 쌤,

[상담 10회기/ 12월6일 참여자(영이)의 SDLMI 과정]

영 이: 삼십 권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자: 다?(네) 다 한번 읽어보고 싶구나.(네, 재밌어) 끈기가 생겼네요.(네) 하던 일을 오래 못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영 이: 네, 지금은 할 수 있어요, 선생님... 내용도 좋고 재밌어요, 다음엔 '콩쥐팍쥐'요, 다 읽어볼 거야,

[상담 11회기/ 12월6일 참여자(영이)의 SDLMI 과정]

Fisher 등(1997)에 따르면 무언가를 '선택'하는 행동은 이미 그 자체가 강화인으로 작용하므로, 연구참여자에게 어떤 과제를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만으로 내적동기가 유발되어 스스로 상담에 참여하고 과제를 완수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냈다고 볼 수 있다.

## (2) 의사결정 기술

연구참여자 철수의 예전 태도는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거나 침묵하는 모습, 또는 '몰라요', '생각 안 나요', '생각 안 해 봤어요.' 등의 대답을 주로 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고 중재 초기 채색 과제가 주어졌을 때도 캔버스에 정해진 번호와 색깔에 맞춰 순서대로만 채색을 진행하는 등 고정된 사고를 보였다. 그러나 회기가 진행되면서 점차 스스로 채색의 순서와 색깔을 결정함은 물론, 색을 칠할 부분과 칠하지 않을 부분까지 결정하면서 주어진 과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기 시작했다. 철수는 연구자가 묻지 않아도 스스로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이 표현한 결과물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이야기하였다. 특히

스스로 색을 선택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과정을 평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철 수: 처음엔 바탕화면을 그리려고 했었는데, 바탕화면 안 그리는 게 나올 것 같아서...

연구자 어떤 걸 칠해야 될지 안 칠해야 될지 좀... 구별이 되나요?

철 수: .....(생각하는 모습으로 침묵)

연구자: 생각을 하게 되는구나,(네! 네!)

[상담 5회기/ 11월26일 참여자(철수)의 SDLMI 과정]

철 수: 이건 안 그려도 될 것 같아서...(그 부분 안 그리니 어떤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밑에 거 어...어떤 색을 칠해야 될지 몰라서, 검은색 칠하려다가 노란색 칠했어요,

연구자: ... 처음엔 어디를 칠해야할지, 무슨 색을 칠해야할지 몰랐는데 모르는 걸 배우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었나요?

철 수: 생각?

연구자: 생각을 하게 되었구나... 또 어떤 걸 하게 되었어요?

철 수: 바탕화면을 그리면 이상할 것 같은...

연구자: 바탕화면을 칠하면 이상할 것 같은 생각에서 안 칠하는 걸 선택했구나,(네)

[상담 8회기/ 12월13일 참여자(철수)의 SDLMI 과정]

앞서 선택하기에 의해 동기를 찾고 만족감을 느낀 영이 역시, 그 경험이 본인의 진로 직업과 취업 지원으로까지 이어졌다. 영이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M장애인복지관 복지 업무와 연계되어 H대학교 식당 홀 정리 일을 한 경험이 있었으나 졸업 후로는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일을 해본 적이 없으며 구직활동도 시도한 적 없이 지내왔다. 가출 사건으로 인해 여러 기관의 협력에 의해 붙잡혀 집에 돌아온 후로는 M복지관뿐만 아니라 어떠한 기관의 활동에도 일절 참여하지 않은 채, 자신에 대한 권고의 말이나 지도에도 선생님 무섭다는 말을 하며 멀리하는 모습을 1년 이상 나타냈다.

그러나 중재가 반복되고 스스로의 선택에 동기부여의 경험을 쌓으면서, 자신의 능력과 수준, 그리고 자신이 흥미있어 하는 분야를 스스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일자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에 자신에게 적합한 취업 진로로 설거지 일자리를 추천 받아 신청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예전에 H대학교 식당 홀 정리의 경험을 기억하여 이를 알아보고 지원하기로 결심한 것에 이어, 동료 지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부탁해 두었다가 연락을 받고, 카페 바리스타 보조 복지 일자리에 취업하는 결과를 이뤄냈다.

연구자가 영이에게 예전 다녔던 장애인복지관에 제과제빵 자격증 관련 지적장애인 훈련 과정 문의 해보길 추천하였더니, 1년 전부터 선생님(복지사, 치료사)들 무섭다고 가지 않았는데, 9회기 상담 시작 전, 다녀왔다. 제과제빵 자격증 과정 지원이 없어서 대신, 장애인복지관 복지일자리(급식실 설거지)에 지원했다. 모(母)는 '간병인 보조' 일자리가 보다 월급이 많고 퇴직금도 있다며 적극 추천했으나, 영이는 '간병인 보조'엔 관심이 없다. 급식실 관련 일 중에서 식당 홀 정리 일을 원하는데, 그 일자리는 없고 주방 설거지 일자리만 있어서 못마땅했지만, 그것이라도 신청하고 왔다.

[상담 9회기/ 12월 10일/ 참여자(영이) 상담 일지]

영 이: 쌤, \*\* 장애인 복지관에 급식실 원서 낼 거예요.

연구자: 고등학교 때 일했던?

영 이: 네 쌤, 예전에 저 거기서 일했거든요. 설거지 일 떨어지면 할 일이 없으니까, 설거지 별로야. 급식실 홀 정리가 더 좋아요. 그건 거기 \*\* 장애인 복지관에 신청해서 대학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연구자: 거기 또 갈 수 있어요?

영 이: 예전 쌤들도 거의 바뀌고 했으니까, 예전에 지원 심사받은 게 있으니까,

[상담 10회기/ 12월10일 참여자(영이)의 SDLMI 과정]

첫 상담에서 (취업)일하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추워서 나가기도 싫은데, 집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일하기 싫고 집에서 놀고 있다고 했었다. 상담 중반이후 제과제빵 문의하러 장애인 복지관에 방문하였다가 설거지 일자리를 소개받고, 이어 다른 복지관에 본인이 더 선호하는 대학식당 홀 정리 일을 알아보고 신청하겠다고 하더니, 며칠 후 예전부터 가깝게 지내던 지적장애 3급 친구로부터 일자리 바리스타 보조 복지일자리를 소개받았다. 상담 이후, 영이는 그 친구와 전화하면서, 친구가 하는 바리스타 보조 일자리 나면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했던 적이 있었는데, 마침 일자리가 나와서 영이에게 소개를 해주었고, 곧바로 영이는 친구 일하는 곳에 가보고, 담당자와 면접도 보았다. 기본 서류가 준비가 끝나면, 다음 달부터 일할 것 같으며, 들뜬 모습을 보였다.

[상담 12회기/ 12월20일/ 참여자(영이) 상담 일지]

의사결정이란 이미 확인된 몇 가지 대안을 평가하고, 그 중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을 선택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지극히 복잡한 과정이다. Beyth-Marom 등(1991)에 따르면 의사결정은 관련 행동 대안을 나열하고 각 행동에 의해 가능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결과의 중요성을 확인한 뒤 가장 매력적인 최종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각 결과의 가치를 통합하여 비교하는 기술이다. 색칠과제를 위해 스스로 원하는 색깔을 고르고 채색의 여부를 결정하여 목표를 달성하려는 철수와, 선택하기에서 쌓은 성공과 동기의 경험을 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로 확장하여 취업까지 연계한 영이 모두, 중재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이러한 의사결정 기

술이 자연스럽게 학습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학습된 무기력의 변화

### (1) 문제해결 기술

중재 과정에서 철수는 연구자와의 상담시간에 지각하는 일이 잦았는데, 몇 분 단위가 아닌 30분 혹은 1시간가량 지각하면서도 상담에는 계속 참여하고 있었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연구자가 알아본 결과, 철수가 '약속 시간 1시간 전' 또는 '약속 시간 10분 전'과 같은 시간 개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전에는 무려 3년 동안이나 K장애인복지관 담당자가 철수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상기시켜 주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연구자는 중재 5회기에서 철수가 상담 시간 10분 전 상담실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중재를 실시하였는데, 철수는 약속시간을 잊지 않고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스마트폰 캘린더 메모장 앱' 활용을 스스로 생각해내었다. 이에 추가적으로 연구자가 '스마트폰 알람 저장 기능'에 대해 안내하여 지도해 주었더니, 이후 철수는 K장애인복지관 담당자가 미리 철수에게 전화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점검을 통해 상담 약속 날을 인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제해결 기술에 있어 가장 우선되는 것은 문제에 대한 인식이며, 문제를 해석하고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찾는 것은 그 이후의 과정(Wehmeyer 등, 2007/2010)이라는 점에서, 철수가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은 큰 발전이었다.

연구자: ... 매일 늦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

철 수: 핸드폰 메모장에 저장하면 돼요,

연구자: 아, 그런 좋은 방법이 있구나.~ 알람 맞추는 방법도 있는데...

연구자: 지금 바로 해볼래요?

철 수: 네.(스스로 메모장에 저장, 알람 맞추기는 서툴러서 연구자가 도와줌)

[상담 6회기/ 12월10일 참여자(철수)의 SDLMI 과정]

연구자: 오늘 1차 상담 종결인데, 다음 주 목요일 12시에 한 번 더 보기로 했죠, 기억할 수 있어요?

철 수: 네, 11시50분까지 오면 되죠?

연구자: 시간약속은 메모장에 쓰는 것으로 스스로 생각했는데, 기록할래요?

철 수: (폰 다이어리 스케줄 기록)

연구자: 알람은 12시까지 오려면 몇 시에 맞추는 게 나올 거 같아요?

철 수: 11시 30분?(안 맞춰도 올 수 있어요? 아니면 맞추는 게 나올까요?)

연구자: 알람 맞추는 게...(한 번 해볼래요?)

철 수: (스스로 폰알람 입력) 매주반복 할까요?  
매주 반복만 알면...(아 그때만 매주 반복 이런 걸 몰랐구나)  
몰랐었어요, 매주반복...

[상담 8회기/ 12월20일 참여자(철수)의 SDLMI 과정]

## (2) 자기효능감 및 긍정적 귀인

반복된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 형성된 학습된 무기력은 자신감과 통제력을 떨어뜨리고 우울함과 부정적 인지를 증가시킨다. 이 연구에서도 연구참여자 철수는 평소에 아르바이트를 하루나 이틀 만에 그만 두거나 해고당하는 일을 비밀비재하게 경험하고, 약 10개월째 무직으로 지내온 상태였다. 철수 역시 계속된 실패 경험과 좌절로 인해 모든 일에 대해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 철수는 검사에 있어서도 검사결과를 통해 자신이 드러날까봐 검사 자체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거듭된 실패만 경험하였던 철수는 채색 완성하기 과제 수행을 통해 성취감을 조금씩 맛보기 시작했고, 그동안 어둡고 무표정한 표정에서 미소를 짓는 일이 빈번해졌다. 자신이 표현한 과제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고 채색 활동에 집중하여 끝까지 완성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작품을 하나하나 완성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다른 채색방식도 도전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철수 모두 중재 실행과정에서 잠재되어 있던 미술적 재능을 발견하였다.

철 수: 다 그리고 나니 괜찮은 것 같아요.(괜찮은 게 어떤 기분일까요?) 성공한 것 같아요.

연구자: 다음번엔 비슷한 방식으로 할까요, 다른 방식으로 한 번 해볼까요?

철 수: 다른 방식으로 한 번 해봐요.

[상담 4회기/ 11월12일 참여자(철수)의 SDLMI 과정]

연구자: 그림을 잘 그리는 줄 몰랐어요?

철 수: 제가 그림 그리는지 몰랐어요.

연구자: 그래서 그림검사 안한다고 한 거예요?(네.)

연구자: 이번에는 집, 사람 나무 그림 한 번 도전 해볼래요?(네.)

[상담 6회기/ 12월10일 참여자(철수)의 SDLMI 과정]

거듭된 과제 성공의 경험은 철수의 무기력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쳐, 점차 이전에 해고 등으로 인해 자신감을 잃었던 취업에 있어서도 서서히 회복하여 스스로 일자리를 희망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자신이 선호하는 일이 무엇이었던지 고민하면서 자기 자신을 인지하게 되었다.

상담 기간 중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음식점 일을 구했다. 약 10개월 전에도 고기집, 횡집에서 설거지, 서빙을 하였으나 하루에서 사흘 만에 실직을 반복했다, 이번에도 비슷 패턴의 일자리를 구해, 칠일 만에 그만두어 반복되는 패턴의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실직으로 무기력에 빠져있던 참여자가 중재 기간 중에 다시 일자리를 얻고, 일하러 나가는 실천을 보였으며, 하루에서 사흘보다 긴 기간인 칠일 동안 일을 하였다.

[상담 7회기/ 12월18일]

연구자: 만약, 구청(국가)에서 일자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철수씨는 어떤 일을 선택하고 싶어요?

철 수: 앉아서 하는 거 일단은...

연구자: 앉아서 하는 어떤 거? 발로, 말로,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철 수: 손으로...

[상담 8회기/ 11월20일 참여자(철수)의 SDLMI 과정]

연구참여자 영이는 상담 초반에 대화 주제의 대부분을 남자친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고 화제가 전환되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내 지루해하면서 상담 종결을 원하는 등 제대로 된 상담이 진행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상담 6회기에 책읽기로 목표를 재설정 한 이후로 영이는 점차 남자친구라는 한정된 주제로부터 점차 벗어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과의 대화에 어울리는 화제를 유지하며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보다 향상된 선택하기 기술과 의사결정 기술을 통해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스스로 선택하여 읽음으로써 만족감과 재미를 느끼면서 남자친구라는 한정된 주제의 이야기를 벗어나 타인과 다른 주제로 대화할 수 있는 태도가 증진되었다. 중재 후반에는 남자친구에 관한 화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과제에 대한 집중하는 시간도 늘어나는 등, 향상된 사회적 기술과 주의집중력을 나타내었다.

6회기에 목표행동을 수정한 이후, 7회기에 남자친구 이야기 2회·상담시간 약 40분, 8회기에 남자친구 이야기 1회·상담시간 약 40분, 9회기에 남자친구 이야기 1회·상담시간 약 45분, 10회기에 남자친구 이야기 0회·상담시간 약 45분의 모습을 보였다. 11회기에는 남자친구 이야기 1회·상담시간 약 50분, 12회기에는 남자친구 이야기 0회·상담시간 약 50분의 모습을 보였다.

[상담 10회기/ 12월 13일/ 참여자(영이) 상담 일지]

영 이: 맨날 집에서 평굴평굴 노니까...

연구자: 어떻게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영 이: 제가 노력을 해서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연구자: 어떤 노력을 했어요?

영 이: 책 읽는 거, (책 읽는 거, ~ 또?) 여기 맨날 오는 거

[상담 12회기 / 12월20일 참여자(영이)의 SDLMI 과정]

####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성인 초기로 진입하였음에도 직장 및 지역사회 관계 속에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학령기 이후의 성인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대면상담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SDLMI)을 적용함으로써, 과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연스럽게 일상생활 속 자기결정행동을 향상하고 학습된 무기력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SDLMI)은 성인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행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으며, 이는 지적장애학생에 대한 자기결정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독립변인으로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SDLMI)을 사용하여 효과를 거둔 선행연구들(김갑상, 백은희, 2013; 김창호, 2011; 염지혜, 이숙향, 2015; 정윤지, 백은희, 2012)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특히 자기결정과 관련한 선행 연구는 대부분 학령기 학생이 그 대상인 반면, 성인 대상의 연구는 극히 부족하며(김수진, 박은미, 2017), 이옥인, 박은영, 최경림 (2009)의 연구와 같은 중재연구는 더욱 드물다. 자기결정행동은 결코 하루아침에 형성될 수 없으므로 평생에 걸쳐 교육되어야 하지만, 학령기는 20세 전후에 종료되므로, 자기결정행동이 부족한 채로 학교를 떠난 지적장애인에게 있어 전환기 이후 맞이하는 긴 성인기 과정 중 겪는 자립생활의 어려움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 역시 사회 구성원으로 통합되어 인격적 존재로서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부모나 가족의 돌봄 없이 성인기 삶을 스스로 영위해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결정행동을 습득하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자기결정행동은 자립생활의 가능성을 결정지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박성우, 신현기, 2003). 이런 점에서 학령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타인의 선택에 의존하여 생활하던 성인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적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기결정행동 중재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자기결정행동의 교수전략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후속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보다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자신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마저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왜곡된 신념체계인 '학습된 무기력'은 인지적 해석의 문제이며, 이러한 신념체계를 바꿔주기 위해서는 과제수행을 돕고 문제해결을 경험하게 하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백은희, 2005). 일상에서 겪는 학습된 무기력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한 귀인 훈련만으로는 부족하며 성공의 경

힘을 쌓게 하는 행동전략의 사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두 명의 연구참여자 모두는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SDLMI)이라는 구체적인 전략을 통해 작은 부분부터 성공의 경험과 동기를 찾음으로써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점차 스스로의 학습된 무기력으로부터 탈출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발달장애 학생에게 자기결정 전략을 가르치는 교사의 인식과 실태에 관한 연구를 보면, 교사들은 자기결정 전략의 중요성은 잘 인식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전략의 적용은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옥인 등, 2009). 따라서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SDLMI)을 상담장면에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하여 활용하는 것은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교수학습을 실행하는 데 있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셋째, 질적 분석결과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보다 자기결정적인 행동과 언어적 표현을 나타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학습 무기력과 반대되는 행동, 즉, 관심과 흥미, 과제 완성,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자발성을 보여주었다.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SDLMI)을 실행하기 전, 연구참여자들은 구체적인 행동변화의 계획이나 목표를 세우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점차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SDLMI)을 통하여 자신의 현행수준을 파악하고 방해요소를 식별한 뒤 이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확인할 수 있었고, 상황에 따라 앞 단계로 돌아가 목표를 재설정하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도 있었다. 이를 상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상담이란 내담자와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변화되는 것이므로, 내담자로 하여금 상황에 따라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게 함으로써 상담자와 내담자가 진정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SDLMI)은 상담 과정에서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모형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해 보면,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SDLMI)은 성인 지적장애인과 그의 행동과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질적분석으로, 연구참여자의 자기결정행동에 대한 인식을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는 대안적인 접근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0년 이후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기결정 연구에서 종속변인인 자기결정력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측정도구가 사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해외 검사도구를 번역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국내표준화된 검사는 부족한 현실이므로, 양적 측정을 위한 검사법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안적인 검사방법이 요구되고 있다(김수진, 박은미, 2017; 이숙향, 2008). 특히 자기결정 경험과 인식에 관한 여러 국내연구에서 주로 부모나 교사와 같은 주변인의 인식은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정작 더 중요한 자기결정 당사자의 인식은 간과되고 있는 상황이므로(김수진, 박은미, 2017)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의 대화와 상담일지를 기반으로 심도있는 질적분석을 실시한 것은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연구는 7주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실시되어 시간적인 제약이 많았다. 또한 학교와 같은 교육현장과 달리 복지관 상담이라는 중재 환경의 한계

로 인해 일주일 2회 가량의 회기만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중재가 이뤄지지 못하였다. 특히 영이의 경우 자기결정검사의 수치가 동일하였음을 고려할 때, 보다 장기간에 걸쳐 검사결과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또한 연구기간을 보다 여유 있게 설정하여 중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이의 경우 중간에 상담출석율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므로, 과제수행도의 향상이 순수하게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SDLMI) 중재의 효과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독립변인에 강화 프로그램을 설정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함으로써 실험통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자기결정교수학습 모형에 대면상담기법을 적용한 연구이다. 이 연구의 결과 지적장애인의 대면 상담과정에서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의 세 단계가 유용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인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내적 동기를 고취시켜 자기결정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장애영역과 환경에서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SDLMI)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탐색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갑상 (2018). 자기결정 행동의 구성요소와 긍정심리학 이론에 기초한 성격 강점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행동분석·지원연구*, 5(1), 105-128.
- 김갑상, 백은희 (2013). 통합교육 환경에서 자기결정 학습모형이 정인지체 학생의 자기조정 학습 전략 사용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학연구*, 47(4), 21-40.
- 김성희, 신현기 (2017). 지적장애 아동 상담 유경험자의 지적장애에 대한 인식 연구. *재활심리연구*, 24(1), 203-219.
- 김소연, 이숙향 (2017). 가정과 연계한 자기일과계획하기 교수가 지적장애 초등학생의 자기일과 계획하기 및 자기주도행동 수행과 자기결정행동에 미치는 영향. *지적장애연구*, 19(1), 127-153.
- 김수진, 박은미 (2017). 국내 특수교육분야에서의 자기결정 관련 연구에 대한 고찰. *정서·행동장애연구*, 33(3), 367-392.
- 김창호 (2011).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SDLMI)에 기초한 직업훈련이 정인지체 전공과 학생의 작업 수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특수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창호, 백은희 (2011).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SDLMI)에 기초한 직업훈련이 정인지체 전공과 학생의 작업 수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학연구*, 46(1), 125-148.
- 김창호 (2012).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SDLMI)이 정인지체 학생의 과제일반화에 미치는 효과. *특*

- 수교육학연구, 47(2), 47-67.
- 류숙렬 (2002). 자기결정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전이기 경도장애 학생의 자기결정력 증진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 박성우, 신현기 (2003). 경도 정신지체인의 고용상태와 거주형태에 따른 자기결정력과 삶의 질 비교. 특수교육학연구, 38(3), 259-281.
- 박주경, 강영심 (2011). 자기결정학습모형을 적용한 사회과 수업이 통합학급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2(2), 115-139.
- 백은희 (2005). 정신지체 이해와 교육. 교육과학사.
- 안혜신, 이숙향 (2015). 자기관리전략을 이용한 자기일과계획하기 교수가 지적장애청소년의 자기일과계획하기, 자기주도 활동 및 일과활동패턴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 14(1), 99-127.
- 염지혜, 이숙향 (2015). 태블릿 PC 기반 자기결정교수학습모델(SDLMI) 중재가 초등학교 중도 지적장애 학생의 수업참여행동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특수아동교육연구, 17(3), 151-178.
- 유환조, 이영철 (2012). 사진과 설명글 단서를 이용한 자기점검 전략이 경도 지적장애 아동의 청소기술 습득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3(4), 313-337.
- 이병인 (2012). 특수교육과 관련된 가족지원 및 상담지원에 대한 요구 분석연구. 지적장애연구, 14(3), 217-238.
- 이성봉 (2013).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능력과 취업 성과와의 관계.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4(4), 293-311.
- 이숙향 (2008). 장애학생의 일반교육과정 접근과 전환을 위한 자기결정 증진의 영향 및 효과적인 중재방안 고찰. 특수교육학연구, 43(1), 233-263.
- 이옥인, 백은희 (2008). 일반교육과정 접근을 위한 자기결정 학습전략이 정신지체 아동의 의사표현 및 도움요청행동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24(2), 195-215.
- 이옥인, 박은영, 최경림 (2009). 자기결정 진로발달 전략이 성인 중증장애인의 작업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중북·지체부자유연구, 52(3), 153-169.
- 이옥인, 박은영, 신인수 (2011). 장애학생의 자기결정에 대한 중재프로그램의 효과: 메타분석. 중북·지체부자유연구, 54(3), 101-121.
- 정윤지, 백은희 (2012). 자기결정 교수학습모형에 기초한 직업훈련이 정신지체학생의 커피 만들기 작업수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학연구, 46(4), 29-48.
- 조창빈, 김두영 (201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현황 및 요구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7(4), 1-24.
- 최성욱, 이제화, 이수진, 김민정 (2007). 한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현황 및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7, 141-166.
- 최화진, 김수연 (2008). 자기결정력 증진 모델을 적용한 미술수업이 일반학생 및 정신지체학생의 자기결정력에 미치는 효과. *교과교육학연구*, 12(2), 579-600.
- Agran, M., Blanchard, C., & Wehmeyer, M. L. (2000). Promoting transition goals and self-determination through student self-directed learning: The self-determined learning model of instruction. *Education & Training in Mental Retardation & Developmental Disabilities*, 35(4), 351-364.
- Beyth-Marom, R., Fischhoff, B., Quadrel, M. J., & Furby, L. (1991). Teaching decision making to adolescents: A critical review. In J. Baron & R. V. Brown (Eds.), *Teaching decision making to adolescents* (pp. 19-59). Hillsdale, NJ, U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Field, S., Martin, J., Miller, R., Ward, M., & Wehmeyer, M. (1998). *A practical guide for teaching self-determination*. Reston, VA: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 Fisher, W. W., Thompson, R. H., Piazza, C. C., Crosland, K., & Gorjen, D. (1997). On the relative reinforcing effects of choice and differential consequences.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30(3), 423-438.
- Hill, C. E., Thompson, B. J., & Williams, E. N. (1997).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5, 517 - 572.
- Pietrofesa, J. J., Leonard, G. E., & Van Hoose, W. (1978). *The authentic counselor(2nd)*.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
- Shogren, K. A. (2018, October). *Promoting systems of support to enhance selfdetermination for all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vited lecture at Kongju National University, Chungcheongnam-do, South Korea.
- Wehmeyer, M. L., M. Schwarz (1997). Self-determination and positive adult outcomes: a follow-up study of youth with mental retardation or learning disabilities. *Exceptional Children*, 63(2), 245-255.
- Wehmeyer, M. L., Palmer, S. B., Agran, M., Mithaug, D. E., and Martin, J. (2000). Teaching students to become causal agents in their lives: The self-determining learning model of instruction. *Exceptional Child*. 66, 439 - 453.
- Wehmeyer, M. L. (2005). Self-determination and individual with severe disabilities: Reexamining meaning and misinterpretings. *Research and Practice in Severe Disabilities*, 30, 113-120.
- Wehmeyer, M. L., Agran, M., Hughes, C., Martin, J. E., Mithaug D. E., & Palmer, S. B. (2007). *Promoting self-determination in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이숙향 역 (2010). 발달장애학생의 자기결정 증진전략. 서울: 학지사.
- Wolman, J., P. I. Campeau, P. A. DuBois, D. E. Mithaug, and V. S. Stolarski (1994). *AIR Self-determination Scale and user guide*. Palo Alto, CA: American Institute for Research.
- Yin, R. K. (2013). *Qualitative Research from Start to Finish*. 박지연 · 이숙향 · 김남희 공역 (2014). 질적 연구 시작부터 완성까지. 서울: 학지사.

## The Effects of In-person Counseling based on SDLMI on the Self-Determination Behaviors and Learned Helplessness of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Kim, Gyeonghee · Han, Sangmin · Han, Songyi · Paik, Eun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in-person counseling based on SDLMI on the self-determination behaviors and learned helplessness of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who were provided with in-person counseling for case management services in a social welfare center. The participants were two adults in their early twenties(one male, one female) and the effects of the SDLMI-based in-person counseling were measured using Self-determination Scale, Learned Helplessness Scale Scoring, and Goal Attainment Scale. Also, a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o describe perception changes of the participants, the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CQR) was conducted for the conversation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both of the participants improved self-determination behaviors and showed positive changes in their learned helplessness. Also, the qualitative analysis based on the conversation between the counselor and the client showed that the participants' perceptions associated with self-determination and learned helplessness had been changed in a more positive way.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SDLMI could be an effective tool for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o be self-determined and that the model was evidenced to be effective when it was combined with in-person counseling services.

Key words : The Self-Determined Learning Model of Instruction, SDLMI, in-person counseling, Intellectual Disabilities

게재 신청일 : 2019. 03. 05

수정 제출일 : 2019. 08. 20

게재 확정일 : 2019. 08. 26

---

\* 백은희(교신저자) : Dept. of Special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hpaik@kongju.ac.kr)